

거친 흙은  
나의 삶이 쉴 곳이다

강영봉 지음



## 목 차

### 제1부 농민의 아들

1.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 9
  - (1) 유래
  - (2) 삼천포화력발전소
  - (3) 고성하이발전소
2. 아버지에 대한 추억 … 19
3. 농민의 아들(ㄱ) … 27
4. 농민의 아들(ㄴ) … 33
  - (1) 중학교 시절
  - (2) 고등학교 시절

### 제2부 죽을 각오로 갔는데 살아서 돌아오다

5. 입대 일의 추억 … 47
  - (1) 시험장에서
  - (2) 용돈 벌기
  - (3) 부모의 눈물
6. 베레모를 쓰기까지 … 57

7. 제1공수 부대에 배치되다 … 60
8. 훈련이냐? 봉사냐? … 66
  - (1) 낙하산 훈련
  - (2) 생식(生食) 훈련
  - (3) 1000리 행군
  - (4) 소회(所懷)
9. 결혼과 전역 … 78

### 제3부 과수원과 발전소

10. 과수원을 다시 개간하다 … 87
11. 구멍가게에서 건설 현장으로 … 91
12. 과수원에 심은 정성(精誠) 나무 … 96
  - (1) ‘매실’로의 수종 변경과 성공
  - (2) ‘정성(精誠)’이란 이름의 나무를 심다
  - (3)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적 생각한다
13. 발전소 건립과 이주 단지 … 119
  - (1) <금강토건> 설립
  - (2) 발전소가 들어오기까지
  - (3) 발전소 이름에 “하이”가 들어가야 한다
  - (4) 새 이주 단지는 ‘코리안 모델’
14. 자녀들에 대하여 … 147
15.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 150
16. 아마추어 사격 선수로 입문하다 … 154

## 제4부 고향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

17. 정치에 입문하다 … 161
18. “청렴”은 나의 신조 … 166
19. 지역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 … 173
  - (1) 이주 단지 내 ‘문화 센터’ 건립
  - (2) 요양원
  - (3) 덕명리 봉화골 도로 개설
  - (4) 전망대
  - (5) 서부 신도시 구상
  - (6) 의회 발언

### ■ 부 록

## .2.

### 아버지에 대한 추억

나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농민이었다. 나는 2남 5녀 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위로 누나가 둘 있었다.

내게는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 농사를 지으셨지만, 아버지는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었다. 이 말은 내가 아들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 아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당시 50, 60년대의 농촌에서 아버지는 그냥 농사만 짓고 사시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 그래서 오리, 양파 농장도 차리고 염전도 하셨으며, 바닷가에서 쥐포 공장도 운영하셨다. 짧은 기간이지만 1년 정도 옛

공장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삼천포 시내에서 양화점을 두 군데 점원을 고용해서 차리기도 하셨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훗날 들은 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염전은 특별한 데가 있었다. 전라도에서는 논에 바닷물을 가둬서 염전을 만드는데, 아버지는 너른 바위에 바닷물을 가두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런데, 작은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가 나자 그 불똥이 아버지에게 튀어 하던 가게들도 팔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군호마을>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때만 해도 3년 상을 지냈는데,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아래채에 차려놓은 할아버지 빈소에 밥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친척들끼리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추억할 때면, 내가 종종 꺼내는 일화가 있다. 할아버지에게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내계는 삼촌이 되는) 아들(강태종)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해 겨울에, 삼촌이지만 서로 나이가 비슷하여 나와 둘이서 개구쟁이 짓을 하며 놀다가 그만 지금의 선산 자리에 불

을 놓아 버린 일이 있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긴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달려오셨다. 와서 보시고는, 쌀쌀한 겨울 날씨에 당신의 어린 아들이 콧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얼른 맨손으로 아들의 콧물을 닦아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돌아보시더니 ‘불을 냈다’면서 내 뺨을 때리셨다. 내 나이가 몇 살 더 많아서 그러셨겠지만,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어린 나의 눈에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당시 정부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산을 묵혀 두지 말고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가난한 농촌을 어 떻게든 일으켜 세워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정부도 돈이 없었으므로 인건비를 밀가루로 지급해 주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농촌에 밀가루는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아버지는 선산을 개간하여 3000평의 계단식 밭으로 만들었다. 그때는 장비가 삽과 곡괭이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첫 해는 거기에 산(山)수박을 심었다. 다음해부터는 수박, 참외, 딸기, 고구마, 보리 등 여러 가지를 조금씩 심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이번에는 밭 전체를 과수원(밤, 배, 복숭아)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생산이 되어도 마땅한 판로가 없었다. 또 차가 없었기 때문에 기동력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수입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고생한 것에 비해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서도 계속 술을 드실 정도였다. 삼천포 시내에 있는 〈한마음 병원〉에 2달에 1번꼴로 한 30번은 입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더 사시다가 1995년에 돌아가셨다. 향년 69세였다.

장수하시지 못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 것에 비하면 짧게 사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하고는 15년간 같이 살았다. 다행인 것은, 그때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고 내가 발전소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형편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을 때였다는 점이다. 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모습은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히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차령산맥이거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들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 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 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들이고 있는 걸 몰랐다

아들의 비탈길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나 이제 늙은 짐승 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 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밟 딛고 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 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이건청 시인의 잘 알려진 시, <산양>이다. 물론 모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영웅의 모습일 것이다. 어린 나의 눈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가게 될 길을 평坦케 하신 것이라고. 내가 좀 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은 협한 비탈을 밟으면서 부드럽게 길을 닦아 놓으셨던 것이다.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 것도 그렇고, 혐난한 삶을 뚫고 나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특성을 배양시켜 준 특전사 복무 경험이라든가, 지금 사업의 중심에 있는 과수원은 다 아버지로 인하여 내 손에 있게 된 유형무형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내게 이 재산들이 있었기에 그 위에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여, 이 재산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의 성공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을 때, 깎인 손톱이 사방으로 튕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손톱이 튕어나가지 않도록 제작된 손톱깎이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이런 손톱깎

이의 필요를 느끼고 발명한 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시대를 한참 앞서 간 이분이 그때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버지가 시도하신 많은 일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놀랄 만한 점들이 있지만 그 당시 50, 60년대의 환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소한 일들이었다. 물론 경제력이나 여건들도 전혀 사업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비록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때가 되어 아들인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산과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훈련받은 바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그 위에 나의 집을 짓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시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의 실패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일까? 일의 성패를 떠나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셨다. 특히 장남인 나에 대한 애정은 내 마음 속 깊숙이 느끼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언급하는 어떤 위인이나 영웅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버지 환갑잔치. 원편이 작은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주신다.

### .3.

## 농민의 아들(ㄱ)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농민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으며 자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골목에 떨어진 소똥을 주워 우리 집 재래식 변소에 넣는 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소똥은 인분과 섞여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거름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나는 변소에서 똥장군에 인분을 펴 담아 그것을 지고 과수원에 가서 뿐렸다.

소와 돼지를 키우는 것은 기본이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받아 보기도 했다. 돼지가 밤에 새끼를 낳으면 호롱불을 켰다. 돼지는 원래 새끼를 많이 낳지만, 한 10여 마리 낳으려면 2~3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돼지가 순산을 해서 양막(羊膜)을 두르고 나오면, 먼저 수건으로 코부터 닦아 주고 나서 막을 벗겨내고 물기가 마르도록 온몸을 잘 닦아 주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돼지 새끼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 부모와 같이 하기도 하고, 부모가 없을 때는 혼자서도 했다.

돼지를 2달 정도 키우면 장날에 리어카에 싣고 7~8km 떨어져 있는(1시간 30분 거리) 삼천포 가축 시장에 가서 팔았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다 비포장 도로였다. 그렇게 팔고 나면, 아버지가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주시곤 했다. 지금도 시장에서 국밥을 맛있게 먹던 기억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찡해진다. 그때는 누구나 다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다.

5월이 되면 모내기를 하려고 논에 물을 담아 논갈이를 했다. 못자리를 하고 나서 논을 뒤엎고 써레질을 하여야 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5월이 여름 같지만, 그때는 5월 날씨가 좀 추웠다. 그런데, 논갈이를 할 때 아직 길들여져 있지 않은 소는 누군가가 앞에서 고삐를 잡고 끌어 주어야 했다. 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내가 앞에서 고삐를 잡고 있노라면, 소가 걸을 때마다 튀기는 물로 키가 작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 말로 뻘 범벅이 되었다. 그 덕분에 하루 종일 젖은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했다. 일할 때는 학교 운동

회 때 입던 반팔 반바지 운동복을 입었고, 갈아입을 옷이 따로 없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다. 동네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지금의 대학교 진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쉬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 무렵, 내 딴에는 그럴듯한 장래의 농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염소를 5마리 길러서, 60일 후에 새끼를 2마리씩 낳으면 새끼가 모두 10마리가 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낳으면 새끼가 20마리가 되니까, 어미와 함께 모두 25마리로 늘어나고—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농(富農)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학업을 1년 쉬고 난 다음해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집에 돈이 없어도 고등학교는 보내 주겠다.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남자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고 또 선후배 관계가 재산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에 설득되어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몰랐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는 사실을 머잖아 알게 되었다. 사실 공수 부대 지원 요건도 고등학교 이상이었다.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군대 생활은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먼저 가신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는 과수원에 묻어 드렸다. 그 후로 매일 과수원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씨 가문 잘 이끌고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고성하이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우리 선산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발전소 부지에 선산의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선산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부, 고조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도 누워 계신다. 나는 묘지를 이장하려고 발전소가 들어오기 3년 전부터 적당한 대체 부지를 구하러 다녔다. 아내하고 3~4년을 돌아다녔는데도 마땅한 땅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바로 이웃한 덕명리에서 외지인이 소

유하고 있는 땅을 구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 선산은 남향인데  
비해 구입한 땅은 동향인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다.

수몰민(水沒民)처럼 곧 고향이 아예 없어져서 땅을 밟아 보  
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선산을 준비하면서도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그래도 물  
속에 잠긴 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와서 눈으로  
보거나 발로 밟아 볼 수야 있겠지만, 그때의 ‘여기’가 지금의  
'여기'와 닮은 데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다. 물속에 잠겨서 안  
보이는거나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서 안 보이는거나 결과는  
매한가지가 아닐까? 묘를 전부 이장하는 데도 1년 이상은 걸  
릴 것 같다.



과수원 농장에 있는 산소. 위쪽이 할아버지, 할머니(일찍 돌아가심), 작은 할머니. 아래쪽 왼편은 아버지의 묘다. 아버지의 묘 옆에 작은 가묘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가묘도 필요없게 되었다. 오른편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이다.



추석 때 선산에서 성묘할 때 찍은 가족 사진

## .4.

### 농민의 아들(나)

#### (1) 중학교 시절

나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생 10명이 삼천포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학교까지 비포장 도로 8km를 걸어 다니다 보니, 풀뿌리에 차여서 신발이 닳아 보름에 한 컬레씩 바꿔 신어야 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일복이 터지기 시작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 어머니와 함께 7~8km를 걸어 삼천포 시내에 있는 장터로 갔다. 나는 지게를 지고, 어머니는 나무를 머리에 이고 갔다. 책가방은 지게에 묶어 두었다. 어머니가 장사하는 난전

에 나무를 내려놓고 나면 학교까지 2km를 뛰어서 갔다.

대절 버스처럼 그때는 ‘대절 선(船)’이란 게 있었다. 장날에 만 돈을 받고 태워다 주는 어선이었는데, 정원(定員) 같은 것도 없어서, 꾸역꾸역 비집고 타면 한 50명은 탈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시장까지 걸어갔다가 난장에서 나무를 다 팔면 내가 지고 온 지게를 지고 ‘팔포나루터’로 가서 대절 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승용차도 버스도 없던 때라, 당시에는 대절 선이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편이었다.

삼천포 장은 5일 장이었다. 4일 동안 나무를 해서 다음날 장이 설 때 팔러 가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 되어도 놀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는 말이 있다.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는 또래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보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교육에 꽁꽁 묶여서 놀래야 놀 시간이 없는 오늘날의 아이들과는 달리 내가 노는 시간에는 당장 우리 집의 생계가 걸려 있었다. 비록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은 별로 없지만, 흙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데 필요한 강인한 힘은 이때부터 길러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삼천포 가는 길에 <사등>이라는 마을-그때는 삼천포시에

속했지만, 지금은 사천시에 속해 있다—이 있었다. 우리 동네와 시장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 곧잘 그곳에서 쉬어 가곤 했다. 그런데, 겨울에는 찬바람이 해안에서 불어닥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장난이 아니었다. 본래 겨울의 바닷바람은 훨씬 더 차갑다. 눈물이 날 정도로 추울 때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 내야 했다. 양말도 기워서 신고 다닐 때라,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는 장갑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 (2)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다니면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요령을 피울 줄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빵이 먹고 싶을 때는 책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원이나 1000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국수와 빵을 사 먹었다. 순전히 먹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또 논가나 밭가에 심어 놓은 남의 고구마와 무를 뽑아 먹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순전히 먹기 위한 도둑질이었다.

## 1) 걷고 달리기

고등학생 2년 반 동안은 학교까지 7km 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고 뛰면서 다녔다. 학교 가기 전에도 할 일이 있었다. 바닷가에 가서 파지기–지게 위에 짐을 많이 실으려고 수숫대 옆을 엎은 것. 거기에 비닐을 깔고 모래를 실었다–로 모래를 짊어지고 와서 집에다 내려놓고 학교에 갔던 것이다. 그 일을 매일 아침마다 4번씩 했다. 모래사장에서 육지까지는 100m나 되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물론 지금은 바닷모래를 그냥 쓰지 않지만, 동네에 강도 없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도 사용했다.

아버지는 내가 실어 나른 모래로 블록을 만들어 파셨다. 아버지는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블록을 만드셨는데, 나무로 블록의 틀을 만들고 그 안팎에 양철을 대어 매끄럽게 했다.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걷고 뛸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달리기에는 저절로 선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였던 것이다.

## 2) 소 먹이기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나무를 해다  
파는 대신 소를 먹였다. 정부에서 용자를 얻어 비육우를 5마  
리 먹였던 것이다. 5마리가 적은 수로 들리겠지만, 그 시절에  
소 5마리를 키우는 데 요구되는 노동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지금 소 100마리를 먹이는 일에 맞먹을 것이다.

소를 먹였다고 해서 나무를 아주 안 하게 됐다는 말은 아니  
다. 소의 먹잇감은 짚과 고구마 줄기였다. 이것들을 작두로 썰  
고 끓여서 여물을 만들어 먹였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소죽을  
쑤어 줘야 했기 때문에 365일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  
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 없었던 것이다. 나무 하는 일에는 방  
학도 없었다. 오히려 학교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일과가 나무  
하는 일이었다. 소나무는 잘라서 지게에 엎고, 껌티(그루터기)  
는 곡괭이로 뿌리째 파서 파지기에 담았다. 갈비(솔가리: 솔잎  
마른 것)는 밧줄로 단을 만들어 묶고, 솔방울은 주워 가마니  
에 넣었다.

그때는 산림녹화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살아 있는 소  
나무를 잘라 땔감으로 쓰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다녔다. 지금은 녹화 사업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지만, 그때의  
산은 지금의 북한처럼 민둥산이었고, 소나무도 다 베어 내어

띄엄띄엄 서 있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는 단속의 힘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땜감은 서민 가정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우선 땜감이 있어야 불을 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소죽을 끓여 소도 먹이고, 또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소를 먹이려 산에 갈 때는 나는 꼭 망태를 메고 갔다. 소는 산에 놓아 먹였는데, 소가 유유히 풀을 뜯는 동안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장기도 두고 공기놀이, 육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 시간도 놀기에는 아까울 뿐이었다. 그래서 혼자서 풀을 베어 꼴망태에 가득 담아 어깨에 메고 내려오곤 했다.

겨울에는 벚짚과 고구마 줄기를 작두로 썰어 삶아서 소를 먹이는 일을 1주일에 두 번씩은 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아버지의 과수원을 확장하는 일도 했다. 겨울에는 주로 나무를 하고, 여름에는 소 먹이는 일을 많이 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 밥 먹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보낸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일하려고 태어난 머슴 보다도 더 많이 일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결과는 시원찮았다. 그러다가 내가 군대 가면서 비육우를 먹이는 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다. 큰누나가 시집갈 때 비육우 1마리를 150만 원에 팔아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 성과라면 유일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육우를 먹여서는 재미를 본 것이 없었다.

### 3) 축구

집안일을 돋느라, 당연한 결과겠지만, 학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니고 중간축에 들었는데, 그래도 2학년 때는 반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3학년 때는 전교 체육부장이 되었다. 나는 그때도 추진력과 통솔력이 좋았다. 한 예로, 교련 시합을 하면 우리 반은 단결이 잘되어 전교 1등 반이 되곤 하였다.

배가 고프니까 특히 내기 축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합을 해서 진 팀이 라면이나 국수를 냈다. 라면이 10원, 국수가 15원 하던 때였다. 때로 공부하기도 제도(製圖)하기도 싫은 날이면 ‘축구나 하자’면서 담임선생님을 꼬드기기도 했다. 다행히 선생님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우리와 같이 운동장에서 뛰기도 했다. 학교 체육 행사 때가 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본 수업하기 전 자습 시간에 2게임, 방과 후에 1게임

씩을 하였다.

이렇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1, 2학년의 2년 동안 계속되다가 3학년이 되자 외부 실습을 나가면서 중단되었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였지만, 축구 경기는 특히 반을 단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날이면 더더욱 그랬다. 모든 반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 면에서 다른 과들은 우리 ‘건축과’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 4) 사격과 수영

군 출신이었던 당시 교련 선생님은 사격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학교에 건의하여 총을 하나 사서 학생들을 연습시켰다. 나는 그때 전교 체육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것이다) 내게도 총을 주면서 한번 쏴 보라고 하셨다. 이것이 내가 사격을 하게 된 첫 번째 기회였다. 사격부에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3명이 있었는데, 학교 대표로 도 체전에 나가기도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때의 경험은 훗날 군대에서 저격수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여름 방학 때는 바닷가에서 전복, 명게, 미역 등을 따면서 해녀들과 잠수하며 놀기도 했다. 그때는 놀 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마련해 준 바닷가가 유일한 놀이터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건축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 놀이터는 훗날 군대에서 수영 1인자가 되는 데 손색없는 훈련 장소가 되었다.

우리 집은 어른이고 아이고 늘 해야 할 일로 바빴지만 빈궁한 살림살이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보통’ 수준—오늘날 생각하는 보통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으로 살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산과 전답 같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점으로, 우리 집은 그 시절에도 끼니를 굶지 않고 살 수 있

었던 몇 집 안 되는 집들 가운데 포함되었다. 그 시절에는 이웃을 만났을 때 하는 첫 인사가 “밥 묻나(먹었나)?”였다. 이웃에는 하루 한 끼 이상 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굽지 않고 사는 것만도 대단한 복이었다. 전답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봄이 돌아와도 소가 없어서 산에 풀을 먹이러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형편이 못했던 그런 친구들의 고생은 참 컸던 것 같다.

중간쯤 가는 보통의 생활 수준이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집안 사정상 학교도 중간에 쉬어야 했고, 내가 알아서 용돈 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옷도 교복 외에는 사 입은 게 없었다. 단지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나를 고등학교까지 보내 주었지만, 누나와 동생들은 아예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살아 보자는 야망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한 이 모든 경험들 때문인 것 같다. 반드시 부자나 재벌처럼 땅땅거리며 살아 보겠다는 독한 생각을 키우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겠다는 꿈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다고 본다.



입대 전에 아버지와 밭에서 일하던 모습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은 없다. 오히려 나의 아버지에 대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항상 함께 일하는 동료였으며, 언제라도 나를 위하고 도와주시는 큰 바위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내 한 몸 불살라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이 뚜렷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때도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 .12.

### 과수원에 심은 ‘정성(精誠)’ 나무

과수원을 10년 넘게 하니까 비로소 내가 입대하기 전의 과수원 모양으로 돌아왔다. 나는 감나무로 수종(樹種)을 변경하였다. 과실수는 수령(樹齡) 15년이면 사람의 나이 70~80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열리는 열매도 다르다. 하지만 과수원 농사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1년에 2000~3000만 원씩을(인건비, 약값, 장비 비용, 노무비 등) 계속 투자하였지만 수익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았다. 태풍이 오면 열매가 떨어질까 봐 걱정, 약을 안 쓰면 약을 안 썼다고 걱정인 것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

다. 감나무는 1년에 10번은 약을 쳐야 할 정도로 약을 많이 치는 나무인데, 당연히 인체에도 좋지 않았다.

### (1) ‘매실’로의 수종 변경과 성공

감나무 농사를 10년 짓고 나서 매실로 수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매실은 심은 지 5~6년이 되어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하지만, 수확 시기가 감나무보다 빠르다. 6월 초에 수확하기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맞닥뜨려야 했던 태풍과 관련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다. 또 이 지역의 매화꽃은 가장 빨리 피어, 인근 ‘하동’보다도 열흘이나 빠르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실은 신맛이 있기 때문에 맷돼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우리 지역은 배, 감, 포도처럼 단맛이 나는 과일나무에 대한 맷돼지의 ‘노략질’이 골칫덩이였다.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그 센 힘으로 가지를 찢어 놓기도 했다. 그런데, 수종을 매실로 바꾸고 나서 부터는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없어졌다.

하지만 매실 농사를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나는 나무의 높이를 사람 키만큼만 키웠다. 나무가 높으면 농촌 노인들에게 위험할 뿐더러 수확하기도 어려웠다. 또 열매

가 나무에서 땅에 떨어지면 부딪힐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상품으로 부적합해졌다.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딸 수 있도록 나무의 높이를 사람의 키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가지를 줄로 잡아매어 말뚝에 고정시켰다. 이렇게 수형을 잡아 주는 데만 7~8년이 걸렸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매실나무는 모두 서거나 앉아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다리를 타고 수확하는 나무는 하나도 없다.

매실을 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자 때맞춰서 매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매실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사람들에게 가정상비약으로 인식될 정도로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그 점을 잘 보여 주는 <한겨레신문>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 본다.

[요즘이 제철인 매실은 동네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매실은 위장에 특히 좋고 피로 회복 효과도 높아서 매실주를 담그면 가정상비약으로도 쓸 수 있다. 매실의 빛깔이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기 전인 이달 중하순까지가 매실주를 담그기에 가장 좋다. 즙을 내어 꿀이나 설탕에 재우고 냉장고에 넣어 두고서 매실차로 먹어도 좋다. (1994. 6. 13)]

나는 수요에 맞춰 매실 농장을 1만 5000평으로 확장했다. 수확기에는 인부 25명이 1달 동안 일해서 40~50t을 수확한다. 여기에 감(대봉) 5000평, 고사리 3000평을 더해서 1년에 1억 5000만 원(인건비, 자재비 포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제 매실은 우리 집의 고소득을 책임지는 흐자 품목이 되었다. 열매를 부어 주기만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 작업을 하는 ‘자동 선별기’도 3대 구입했다. 2006년부터는 〈공룡청매실〉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브랜드를 “공룡”으로 정한 것은 ‘고성’이 바로 ‘공룡 나라’이기 때문이다. 고성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 1982년 이래로 지금까지 군 전역에 걸쳐서 약 5000점 이상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국내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도 고성에 있을 만큼 고성에는 공룡에 관한 자료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에 더해 〈세계 공룡 엑스포〉도 고성에서 3번이나 열렸다.

## (2) ‘정성(精誠)’이란 이름의 나무를 심다

산에 비가 오지 않아서 한해(旱害)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나무가 말라 죽는 등 농작물이 입는 피해를 보면서 지하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지하 100m 깊이의 지하수를 파서 하루 20~30t의 양을 언제든지 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발 100m의 산꼭대기에  
는 각각 10t과 5t짜리인 2개  
의 물탱크를 만들었다. 그리  
고 지하수와 탱크를 수도 파  
이프로 연결해 놓고 모터로  
물을 끌어올리게 했다. 파이  
프 중간 중간에는 여러 곳에  
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  
도꼭지를 만들어 놓았다. 또

한 평지에서 산꼭대기까지 도로를 내어 차가 올라 다닐 수 있  
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은 한해 피해가 있을 때만  
아니라, 일하면서 밥도 해 먹고 몸을 씻는 데도 요긴하게 사용  
하고 있다.

내가 농민의 아들로 자랐기에 얼마나 부지런해야 농사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만, 과수원 농사는 그보다 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 과수원 농사에는 농한기가 없는데, 겨울에도 가지



산꼭대기에 설치한 물탱크

를 치고 거름을 주어야 다음해 농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봄에는 풀을 베고 약을 살포한다. 매실은 약을 1번만 치면 되지만, 다른 과수는 여러 번 쳐 주어야 한다.

한 달 수확 기간에는 인부들이 25~30명 동원된다. 그날 일을 마치고 인부들이 돌아가고 나면, 나와 아내는 내일 할 일을 위해 박스도 준비하랴, 청소하고 정리하랴, 그리고 나면 저녁 7~8시가 된다. 농장으로 다시 올라오는 시간은 다음날 새벽 5시이다. 농장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그날 경매장으로 나가는 물건을 포장해서 상차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상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개인한테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는 〈농산물 시장 경매장〉으로 나간다. 2~2.5톤 트럭으로 하루에 한 번씩 1주일에 6번 실어 낸다.

그 일이 끝나면, 일꾼들이 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둔다. 일꾼들은 7시 반쯤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아침은 9시에 먹는다. 일꾼들이 매실을 따 가지고 오면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10시가 되면 간식을 준비해서 먹는다. 간식을 먹고 돌아서면, 곧바로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수확기 한 달 동안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서울에 있거나 이곳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 와서 많이 도와준다.

과수원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과수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수원은 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과수원으로 올라갈 때는 선산을 지나서 가는데, 그때마다 내게 할 일을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과수원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는 선산과 함께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주해 가는 곳에서는 과수원을 새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기 때문이다.

## 고성 ‘공룡청매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군호마을〉 강영봉 씨(59·‘공룡청매실’ 대표)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청매실이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강 씨가 운영하는 ‘공룡청매실’ 농장은 청정 바다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바다와 접해 있다. 해풍을 맞고 자란 청매실을 서울, 대전, 부산, 창원 등지의 도시인들과 주문 계약을 통해 직거래를 하고, 또 일부는 진주농산물시장 경매장에서 판매 한다.

‘공룡청매실’ 농장은 40여 년 전부터 부친이 일구어 온 소규모 농장이었는데, 부친이 작고한 후 강 씨가 산비탈을 틈틈이 개간하고 확장하여 현재는 8㏊가 조금 넘는 규모가 되었다. 이 농장에서 맛과 향이 뛰어난 매실을 매년 40여 톤씩 생산하여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때는 농민들이 수확한 매실이 인기가 없어 인건비도 못 건졌지만, 최근 들어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이 생산

되면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공룡청매실’은 향과 맛이 독특한 데다 해풍을 맞고 자란 탓에 매실 엑기스를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매실 장아찌 등 가공품의 판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 씨는 해풍을 맞고 자란 대부분의 과일이나 채소들이 독특한 향이 있고 싱싱하며 맛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4년 전부터는 1.7㏊의 면적에 고사리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농협이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릅나무 0.3㏊와 산초 1㏊ 그리고 매실 농장 인근 0.8㏊의 면적에 대봉 감을 생산하여 꽤 짭짤한 농가 소득을 올리며 부농을 꿈꾸고 있다.

[경남일보 2013.06.10.]





### (3)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적 생각한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이 있다. 돈이 좀 모이면, 가난했던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전에는 꼴불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과시하는 행동을 어느새 따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가 쉽다. 돈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말일 게다. 이런 자기 오류에 빠져들지 않는 비결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다.

나는 50살까지는 소위 메이커 옷이라는 것을 입지 않았다. 장날에 길거리에서 3000~5000원에 살 수 있는 바지나 티를 사 입은 것이 전부였다. 그만 한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릴 적부터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묻는 이에게 산 가격을 말해 주면 믿지를 않았다. 새 옷을 입었을 때는 길거리에서 산 옷이라도 썬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우리 부부는 이 점에서 서로 잘 맞다.

양복도 한참 후에 와서 입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일을 점퍼를 입고 했으며, 또 그 차림이 편하고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양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 때도 점퍼를 입고 다녔다. 이렇게 즐겨 입던 점퍼가 양복으

로 바뀐 것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의정 활동을 할 때 양복을 입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도 넥타이를 맬 때마다 목이 답답하여 이 부분은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옷을 사 입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길거리 표’는 역시 ‘길거리 표’였다. 옷을 사 입은 지 1~2년 정도 지나면 옷감이 쭈글쭈글해지고 색이 바래면서 쉽게 낡았다. 그래서 쉰 살을 넘어가면서는 중저가로 중간쯤 가는 메이커 옷을 사 입기 시작했다. 물론 사치와 허영심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메이커 옷을 찾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메이커 옷을 사 입으면서, 옷이 오래 가고 맵시가 좋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케일이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절약할 때는 ‘뒷놈’(지나치게 아낀다는 의미) 소리도 들을 정도로 철저하다. 하루 현장 일이 끝나면 1, 2원 하는 못 하나도 일일이 챙기는 나를 두고 ‘사장이 그런 거까지 주워 담는다’면서 일꾼들이 내게 붙인 별명이다. 물론 값으로 따지면 못 하나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장이 작은 못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주워 담을 때는 그만한 속뜻이 있는 법이다.

첫째는, 못 하나가 하찮게 보이겠지만 그 못 하나가 없어서 일을 못할 때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 때도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 하찮은 못 하나 때문에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지나가던 사람이 못에 질려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평크 날 수도 있다. 그것은 현장 일을 하던 회사가 당연히 겨야 할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현장 일이 끝나면, 크고 작은 도구들은 물론 작은 못 하나라도 일일이 쟁기면서 현장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강영봉 농원'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



